

금값 연일 최고...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광주 금은방은 '개점휴업' 상태

총장로·금남지하상가 일대 매출 하루 한건도 어려워

국제 상품시장에서 연일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금값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9일 금지금체인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에 따르면 금 소매시세는 3.75g(1돈) 기준 21만945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세금비 제외)으로 전날보다 1100원 올랐으며 최근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광주지역 금은방 업자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날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금값에 금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개시'도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시 총장로와 금남지하상가 금은방 5곳은 손님이 단 1명도 없었다.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인들의 말만 되풀이됐다.

금남지하상가에서 14년째 금은방을 운영하는 윤모(여·58)씨는 "금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며 "1돈짜리 물만지 하나에 24만원이나 되니 사는 사람도 없고, 언론에서 금값이 사상최고라는 말이 나오니 아예 금은방을 찾을 생각도 않는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윤씨의 가게 입구에는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신문기사가 붙어있었다. 금값이 더 이상 될 것이냐 지금이라도 금을 구입하

라는 윤씨의 고욕책이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금값이 올랐으니 파는 사람 많은 것이라는 예측도 맞았다. 이날 평균적인 순금 3.75g(1돈)의 가격은 고객이 금은방에 매도할 경우 19만8500원이었다. 윤씨는 "재테크 목적으로 금을 소유한 사람은 더 오를 것으로 여겨 금을 팔지 않는다. 지난해 금값이 오를만큼 올랐다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설명했다.

총장로 부근에서 26년째 금은방을 하는 이모(여·50)씨도 "최근에

금이 비싸다 보니 구경오는 사람 한 명 없다"며 "가게문만 열뿐, 하루에 1개도 못파는 날이 수도룩 하다"고 근심을 털어냈다.

총장로의 한 대형 소풍몰에 입점한 금은방도 사정은 비슷했다.

주인 신모(여·57)씨는 "지난해 금 1돈에 15만원 하던 때만 해도 14K 상품을 합쳐 하루 10개 이상 '금 불이'가 팔렸지만 18만원이 넘어서면서 하루 1~2개로 줄었고, 최근에는 '올스톱' 상황"이라며 "이것저것 다 합쳐봐야 매출이 몇년 새 1/5로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신씨는 이어 "물건이 팔려야 유동성도 확보되고 가게가 돌아가는데, 금을 떠안고만 있으니 직원 월급도 감당이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은방 주인들의 위안거리는 금은 다른 상품처럼 팔리지 않으면 써거나 폐기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자산가치가 오르는 점.

윤씨는 "금값이 지난 2006년 1돈에 7만원 하던 때에 비하면 현재는 3배가 뛰었는데, 차라리 그동안 물건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장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동환기자 exian@kwangju.co.kr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의 한 금은방. 가게 입구엔 '금 고가 매입'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있는 가운데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김진수기자 jeans@



"백화점서 하는 캠핑도 신나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9일 1층 후문 야외 광장에 '미니 캠핑존'을 열어 비캠프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미니 캠핑존에는 다양한 캠핑용품 등을 전시해 비캠프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고강도 물가잡기' 전력·정유주 타격

소비 위축 땀 유통·건설·은행 등 내수주도 피해

정부가 고강도 물가 잡기 정책을 예고해 국내 증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정책을 쓰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해 기업 실적도 나빠지고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낼 때는 기계와 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고삐를 죄게 되면 정유와 식품, 건설, 금융 등 내수주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요금 외에는 직접 물가를 통제하기 어려워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물가 안정되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가 통제→금리 인상→증시 악재 =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온 힘을 쏟기로 한 것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 수준을 유

지하다가 최근 4% 대로 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업계에 물가 안정을 압박한 데 이어 주유소 500곳을 골라 기름 값 인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물가와 전쟁'에 돌입하면서 증시에 중요 변수가 됐다.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성장보다 물가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계와 기업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사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선에서 물가정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공부문·식품주 물가정책이 가장 민감=정부는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

한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정유, 식품 등 기초 생활품목 관련주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공공 분야와 통신·전력 관련 업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은 벌써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일보다 1.11% 내린 2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업종도 상반기 가격을 올린 공정 효과가 3~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물가정책의 유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품업계에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유사들도 기름 값 급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나서자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어음부도율 한달만에 반등

전월보다 0.02%P↑

전국 어음부도율이 한달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6월중 전국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중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4%로 전월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지난 5월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이후 한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방은 0.0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부도업체 수는 전월 123개보다 14개 줄

어든 109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개, 서비스업 10개가 줄었고, 건설업은 7개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개, 지방은 1개 각각 감소했다.

신설법인 수는 5987개로 전월 5189개보다 798개 줄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77.8배로 전월 60.3배보다 상승했다.

부도업체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300명 신규 채용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사업구조개편에 대비한 금융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급 신규직원 30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20~25일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접수하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단위 권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내달까지 통관서비스 강화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위해 8월말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6월 주2회로 축소됐던 무안-상해 노선이 20일부

터 주4회 증편되었고, 칼리보, 마카오 등 신규 전세기 취항으로 국제선 운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광주본부세관은 새벽 시간대 등 상시 휴대품 통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비상 근무조를 편성,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국시 여행자

가 반입하는 모든 휴대품에 대해 과학검색장비를 통해 신속하게 검사업무 수행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8월말까지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 동행자를 이용한 고가명품의 대리반입, 마약·총기류, 국민건강 위해물질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 향상 조정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배숙

항암육수 샤브샤브

누.코.임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성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